

개화와 수구의 갈등

담당교수 : 배민재

조선 정부의 대청(對淸) 통상정책

- 조선 – 청 관계 : '事大'와 '交隣' vs 만국공법 체제
- 1880년 <<朝鮮策略(조선책략)>>의 전래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외교 방향이 조선을 위해서는 방책의 으뜸[策之上]이다. 그러나 중국과는 옛 규범에 얽매이고 일본과는 새로운 조약만을 행하고 미국과는 표류 선박 문제나 처리하고 격변이 일어나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은 방책의 끝[策之下]이다. 남을 야만 오랑캐[蠻夷]라고 하여 더불어 같이하지 않고 있다가 변(變)이 일어나면 비로소 비굴하게 온전하기를 구하는 것은 무책(無策)”

- 1881년 1월 ‘請示節略(청시절략)’ : 청과 통상할 것을 제의

임오군란

-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
- 군제 개혁 - 5영(營)을 폐지, 무위(武衛)·장어(壯禦)의 2영 설치, 별기군(別技軍) 창설
- 1882년 6월 군료 지급을 둘러싼 소요 사태 → 궁궐 습격
- 흥선대원군이 사태 수습 청일 양국 출병, 갈등 고조
- 일본 정부의 요구 - ① 함흥·원산·양화진의 개시, ② 공사·영사관원의 내륙여행권 획득, ③ 원산·아미에 잉어저의 일본인에 대한 폭행사건 해결, ④ 통상조약에 관한 유리한 양보의 획득
- 제물포조약 6조와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 조인
- 흥선대원군 납치
- 친일파, 친정파 대립 → 갑신정변 야기

갑신정변의 배경

- 1882년(고종 19)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 1882년 6월 6일 조영·조독수호통상조약 체결
- 이른바 '개화파', '개화당'주일영국공사 Harry S. Parkes에게 청국을 거치지 않는 조약 수정 제안
- 미국·영국·독일, 나아가 러시아·프랑스와 수교
- 김옥균, "조선 내정이 날로 위급해지니 내가 청국과 프랑스가 싸우는 틈을 타서 한 번 내정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다"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 전개과정

- “9월부터 玉均·英植·泳孝·光範·載弼이 가끔 모임을 가졌으며 때로는 劉鴻基의 집에서 모였다...광범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竹洞令監과 사이가 나빠 항상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옥균·영효·영식과 더불어 매번 의논하여 함께 개화를 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죽동부자를 제거한 연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또 늘 옥균가에 가서 劉大痴(致)·朴怡順·邊樹와 항상 일을 의논하였다...” <李允相鞫案>
 -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서재필 등
 - 유대치·박제경·변수 등
 - ‘청·불전쟁’으로 청군 병력 이동
 - 일본의 태도 변화
- “청국이 장차 망할 것이니 귀국의 개혁 지사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 다케조에 일본 공사

거사 행동계획 (10월 11일~10월 14일)

- ① 洪英植이 총판으로 있는 우정국 건물 낙성식 날을 舉事日로 한다. 홍영식은 수구파 4營使(韓圭稷·尹泰駿·李祖淵·閔泳翊)의 유고 유무를 탐지하여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회 일자를 정하되 3일 이내로 한다(후에 10월 17일 오후 시로 정했음).
- ②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 도중 別宮에 불을 질러서 거사의 신호로 한다. 別宮에 불이 나면 4營使는 직책상 불을 끄려 화재현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때 4영사 등 수구파 요인을 처단한다. 수구파 1인에게 하수인 2인씩을 배정하되, 하수인은 각각 단검 1자루와 단총 1자루씩을 휴대한다.
- ③ 別宮에 불지르는 일은 李寅鍾이 총책임을 맡고, 李圭完·林殷明·尹景純·崔殷童 등이 함께 석유를 뿌려 수행한다.
- ④ 수구파 4영사의 처단에 대해서는 閔泳翊을 尹景純·李殷種이, 尹泰駿을 朴三龍·黃龍澤이, 李祖淵을 崔殷童·申重模가 담당한다. 만일 이들이 실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일본인 3명에게 조선옷을 입혀 예비로서 수구파 1명에게 1명씩 배정한다.
- ⑤ 별궁 발화 후 수구파의 도래를 기다려 개화파 장사들을 지휘 호령하는 임무는 연장자인 李寅鍾과 李喜禎이 맡는다. 이들의 통신연락과 왕래정찰은 柳赫魯와 高永錫이 담당한다.
- ⑥ 대신들과 別入侍가 출입하는 金虎門 밖에는 申福模가 지휘하는 개화당동지 장사(忠義契) 43명을 매복시켰다가 閔台鎬·閔泳穆·趙寧夏 등이 화재에 대한 문안차 입궐하면 즉시 처치한다.
- ⑦ 대궐 안의 내용으로는 친군영 전영소대장 尹景完이 칭병하여 당번을 천연시키다가 거사 당일 밤에 숙직을 자청한 후, 대궐 밖의 거사에 호응하여 친군영 전영 병사 50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비상선을 넘어 대궐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처치한다.
- ⑧ 顧大嫂(42세의 중년부인으로 신체의 건대함이 남자 이상이요, 완력이 남자 5·6명을 당할 수 있는 궁녀로서 10년 전부터 개화당에 궁궐내 정보를 알려주던 궁녀)라는 별명을 가진 궁녀로 하여금 준비해 준 폭발약을 대궐 밖의 火光을 신호로 하여 通明殿에서 폭발시켜 폭음과 섬광을 내게 한다.
- ⑨ 金奉均과 李錫伊이로 하여금 준비해 준 화약을 갖고 仁政殿 행랑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다가 개화당 요인들이 입궐할 때 폭발시켜 폭음으로 성세를 돕게 한다.
- ⑩ 別宮에 불이 난 뒤 일본공사관으로부터 일본군 30명을 빌려 景祐宮과 金虎門 사이를 왕래하며 의외의 사고를 방지케 한다.
- ⑪ 일이 일어나서 혼잡하게 되면 자기편끼리 또는 일본인과 서로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암호로 '天'자와 일본어 '요로시'를 모든 장사들에게 알린다.
- ⑫ 정변 성공 즉시 국왕은 景祐宮으로 옮겨 모시고 삼중으로 호위하되, 內衛는 개화당 장사(충의계)와 사관생도가, 中衛는 일본군이, 外衛는 조선군(친군영 전영과 후영군인)이 담당한다.

혁신 정강 14개 조항

- ① 대원군을 며칠 안에 돌려보낼 것. 조공하는 허례의 행사를 폐지할 것.
- ②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 ③ 전국의 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검하여 국가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 ④ 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 참으로 우수하고 재능있는 자는 등용할 것.
- ⑤ 그 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
- ⑥ 각 도의 還上제도는 영구히 폐지할 것.
- ⑦ 奎章閣을 폐지할 것.
- ⑧ 巡査제도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 ⑨ 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 ⑩ 그 동안 유배·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 ⑪ 4營을 합하여 1營으로 만들고, 營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近衛隊를 시급히 설치할 것(육군대장은 세자궁을 추대할 것).
- ⑫ 모든 국가재정을 戶曹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 밖의 모든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 ⑬ 大臣과 參贊(새로 임명된 6인의 이름은 생략함)은 閣門 안의 議政府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에 왕에게 품한 다음 政令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
- ⑭ 정부는 6曹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케 할 것.

< 甲申日錄 > , 1884년 양력 12월 5일, 全集, 95~96쪽